

정보통신산업의 새로운 창조를 향하여

—정보통신의 고도화를 통한 수요와 고용의 창출—

UR타결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도 UR협상에서는 약소국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UR타결후 일본은 어떤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긴급 입수된 일본 우정성의
94년도 사업계획을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 (1) 정보통신산업은 21세기를 향한 일본 경제개혁의 중요한 기둥
- (2) 고용의 창출,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분야에서 뉴비지니스 전개를 촉진
 - ① 시장창출 : 광파이버망정비로 2010년에는 새로이 56조엔 이상의 시장창출, 기존 관련 시장과 합쳐 멀티미디어시장은 123조엔 규모가 될 것임.
 - ② 고용창출 : 광파이버망정비로 2010년에는 240만명의 고용창출

중요시책

정보통신기반정비 프로그램(가칭)의 설정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정보통신기반의 정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93년 3월 아래 전기통신 심의회에서 예의심의중이나 '94년 3월로 예정 되고 있는 답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관한 구체적 시책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광파이버망을 중심으로 하는 신세대 정

보통신기반과 관련, 네트워크의 모습,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전제로 한 정비주체, 유선계 무선계 하부구조의 역할 분담 등이다.

둘째, 원격교육, 원격의료등 파이버망을 이용한 공적부문의 첨단 어플리케이션 개발, 민간부문의 관련기술 개발, 영상 S/W의 진흥등에 관한 지원차원 등이다.

셋째, 광파이버망을 이용한 유통, 교육, 의료 등 분야에서 뉴비지니스 진흥을 목적으로 한 관련 여러 법제의 재검토를 포함한 종합적 시책방안이다.

2010년의 멀티미디어시장은 현재의 주요산업인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 통신 기기산업과 필적할 규모가 된다. ([표 1] 참조)

광파이버망 정비로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2010년에는 240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2010년의 광파이버망시장은 명목치로 56조엔(2010년가격, 국내 생산액 기준)이며, 이 시장은 GDP(국내 총생산에서 재료, 부품 등 중간 투입액을 제외한 것)를 30조엔(1990년 가격) 증가 시킨 것이다. 이를 산업연관표에 투입하여 계산하면 24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산출된다.

2010년 시점에서 일본의 노동력인구는 6,700만명 수준인 바 240만명의 고용은 3.6%에 상당한다. 이는 현재의 일본 국내 타산업과 비교할 경우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표 2] 참조)

광파이버망 정비의 경제효과로는 새로이 창출

되는 시장(광파이버망 시장)은 56조엔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 관련시장을 덧붙인 이른바 멀티미디어 시장은 123조엔에 이를 것이다. ([그림 1] 참조)

[그림 1] 광파이버망 정비로 나타나는 시장규모



- 광파이버망 시장 : 광파이버망 정비로 고속 대용량 통신이 가능해 집에 따라 새로이 창출되는 시장(영상 프로그램 배신, 텔레쇼핑 등 신규서비스 및 새로운 단말기 등)
- 기존 멀티미디어시장 : 현재의 단말기, S/W등 멀티미디어산업의 광파이버망으로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

[표 1] 연도별 시장추이

(단위 : 억엔)

년도	1990년			2010년	
	산업	자동차	전자·통신	민생용전기	Multimedia 시장
산업	자동차	전자·통신	민생용전기		광파이버
생산액	399,816	266,803	117,285	1,230,158	561,390
총생산		8,720,000			21,640,000
비율	4.59%	3.06%	1.35%	5.73%	2.60%

(출처 : 1990년은 총무청 「90년 산업연관표 - 속보 -」로 작성, 2010년은 동자료로 추계)

[표 2] 1985년 일본 국내 타산업의 고용규모

(단위 : 만명)

산업	전자통신기기	자동차	민생용전기기기	전체산업
고용 규모	94	135	40	6,067
비율	1.5%	2.2%	0.7%	100%

(출처 : 1975~1980~1985 접속산업 연관표)

광파이버를 써서 새로운 정보통신기반을 전국적으로 정비하면 고속·대용량의 쌍방향 통신이 가능해져 통신 방송 뿐만 아니라 타산업까지도 포함하는 뉴비지니스 창조로 연계되어 그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정비할 경우 구체적 효과를 시산해본 개요는 [표 3]과 같다.

[표 3] 광파이버망을 중심으로한 멀티미디어시장 내역

(단위 : 억엔(2010년 가격))

종 류	금 액
광파이버망 시장	561,390
기존 멀티미디어 산업시장	668,768
합 계	1,230,158

통신·방송의 융합 문제에 대한 대응

통신·방송 융합 실험 추진

신세대통신망 Pilot Model 사업을 '94년 여름부터 3년간 예정으로 추진함과 함께 민간기업이 행하는 CATV망의 고도화등으로 새로운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실험을 지원한다.

FM 다중화의 통신서비스 활용

신세대 통신망 Pilot Model사업의 일환으로 페이징 서비스를 위하여 FM다중화를 사용한 서비스실험을 행한다.

뉴비지니스의 진흥

PHP사업화 촉진

새로운 개인통신 서비스로 기대되고 있는 간이형 휴대전화 시스템(PHP)의 연내 사업화를 추진한다.

지역정보통신시장의 활성화

CATV사업자에 의한 통신서비스까지 포함하는 '풀 서비스'나 지역계 NCC에 의한 멀티미디어에 대응할 수 있는 ISDN서비스 등 새로운 고도 서비스의 실현을 촉진한다.

소지역 무선통신시스템 및 공동사회방송 전개

이벤트 회장 등 비교적 좁은지역(반경 2~3km)에서 동시 쌍방향 통화나 데이터전송을 하기 위한 무선통신시스템의 실용화를 도모한다.

가마사끼 우정장관 기자회견 요지 ('94. 1. 6 각의후 기자 회견)

- '94. 3월말에 광파이버를 이용한 차세대통신망에 관한 종합적 중장기 비전 제시(전기통신심의회 답신)
 - ▲ 2010년까지 차세대 통신망 정비 완료 ▲ NHK등 지상파 TV를 새로운 통신망을 이용한 유선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이통신망을 이용한 새로운 비지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규 개정
- 새로운 시장 진출
 - ▲ 차세대 통신망을 이용한 새로운 비지니스로 2010년까지 56조엔, 멀티미디어 전체로 123조엔의 신규시장 창출
- 새로운 고용 창출
 - ▲ 신규시장 창출에 따라 240만명의 새로운 고용 창출
- 차세대 통신망
 - ▲ 광파이버 케이블을 전국의 가정이나 직장까지 부설 ▲ 음성만이 아니라 선명한 동화상도 송신할 수 있는 미래형 네트워크 ▲ TV 쇼핑이나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비지니스 가능

공동사회정보, 행정정보 등 지역에 밀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동사회방송의 전국적 전개를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BS/CS방송의 활성화

민간사업자의 창의 및 각종 경영자원, 노하우 활용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현한다.

첫째는 다중방송에 관한 유료 방송계약 약관 인가제를 계출제로 완화, 둘째는 위성계 일반 방송사업자에 관한 종합방송 규제의 철폐, 셋째는 유료방송 비율규제의 철폐, 넷째는 CS방송에 대한 참여형태 다양화(요일별 분할 참여)이다.

FM방송의 다양화

제일 외국인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FM에

의한 외국어 방송실현을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

「문자에 의한 FM방송」, 「도로 교통 정보의 제공(VICS)」등 신규 서비스 실시를 촉진한다.

국제적 연계

일·미간의 연계

정보통신기반정비에 관한 시장구조등에 대한 정책대화를 위하여 「일·미 전기통신 Round Table」개최를 위해 조정중이다.

일·EC간의 연계

미국과의 「Round Table」과 같은 취지의 「미·EC 전기통신 Forum」을 개최키로 조정중이다.

94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계획 지원안내

'94년도 1차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구분	융자규모	대상사업분야	지원범위	비고
○ 정보통신 설비 구입 및 시설 개체비 지원	195억원	○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 통신기기(유선, 무선통신기기) - 정보기기(컴퓨터본체, 주변기기) - 부품(능동, 수동, 기구부품) ○ 부가통신사업자 및 전산망사업자의 설비현대화 - DB, DP, VAN, S/W(시스템 용용) ○ 정보화추진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 H/W, S/W 구입 및 네트워크(LAN, WAN등) 구축	소요자금의 80% 이내	상세한 내용은 한국전자통신연구소(기금 관리실)에 문의바람.
○ 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	800억원	○ 통신시스템기술 ○ 전파기술 ○ DB기술 ○ S/W 기술 ○ 컴퓨터 및 주변기기기술 ○ 반도체기술 ○ 정보통신부품기술 ○ 정보통신서비스기술	소요자금의 80% 이내	

* 교부 및 접수기간

- 신청서 교부 : 94. 2. 7~94. 3. 10
- 신청서 접수 : 94. 2. 14~94. 3. 10
- * 접수문의
 - 전화 : (02)587-7001(한국통신연구소 서울사무소)
(042)860-5955(한국전자통신연구소 기금관리실)